

# “재가불자 수행공덕으로 선풍 진작”

“벽송사는 지금까지 출가 수행자들의 정신적 귀의처로 출가 이후의 수행도량으로 자리매김 해왔지만, 이번 중창불사 회향을 계기로 재가 이종에게도 문호를 개방해 명실상부한 사부대중의 수행처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선교경수의 전통을 그대로 되살린 한국 간화선 근본도량 벽송사에서 처음으로 재가불자를 위한 벽송선회가 열렸다.

합양 벽송사(선원장 월암)는 11월 1일부터 8일까지 7박8일간 제1회 재가불자를 위한 벽송선회를 개최했다. 일제일인 1일 오후 2시 벽송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50여 명의 구도자들이 차례로 모여들었다. 저마다 어깨에 짊어온 가방이 앞으로 있을 7박8일 간의 길고 험난한 대장정을 예고했다.

먼저 도착한 참가자들은 자신해 서 앞으로 도반들과 함께 지낼 청어당과 벽송당, 안국당의 창문을 활짝 열고 출고 뒤기에 여념이 없었다. 7박8일간 머물 도량을 손수 정돈하면서 속에서 묻어온 마음의 먼지까지 말끔히 털어냈다. 공부하는 사람과 봉사하는 사람이 따로 없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도왔고, 벽송선회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50여 구도자들은 벌써 오래된 지기처럼 친근한 도반이 됐다.

입재식에서 선원장 월암 스님은 고불문을 통해 “지금 한국불교는 안으로 수행과 교화가 빈약하고 밖으로 종교편향의 정치로 인한 중차대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우려의 뜻을 전했다. 이어 “선회에 참석한 재가수행자들은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욱 정진하고 ‘견성성불’의

중생’의 원력을 다져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제1회 재가자 벽송선회의 정진 공덕으로 한국불교가 수행보도로 거듭나고 간화선의 선풍이 진작돼 사방세계 모두 안락하고 평화로운 정토가 되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제1회 재가불자 벽송선회에 부부가 함께 참가한 박진숙, 박성운 부부는 이번 선회를 위해 보름간 가계문을 단았다. “남해에서 식당을 하는데 마을 어귀에 ‘지리산 벽송선회 갔다 오겠다’고 현수막을 걸어놓고 왔다”는 이들은 이미 월정사 30일 단기출가도 함께 다녀온 수행부부다.

월암 스님이 쓴 <돈오선> <간화정토> 등의 저서를 통해 선원장 스님께 수학과고 싶어 찾아온 이도 있다. 이미경(48) 주부는 “평소에 가벼운 템플스테이는 몇 번 가봤지만 ‘자성불’을 찾고 싶어 스승을 찾아 이곳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다. 멀리 서울에서 온 이란(60)씨도 “벽송사가 처음 재가불자들을 위한 벽송선회를 마련하고 산문을 열었다는데 의미가 깊은 것 같아 바쁜 와중에도 어렵게 참석했다”고 전했다. 지난 달 말 부산 해운정사 3박4일 옹맹정진에 이어 벽송선회에도 참가했다는 김형남(58)씨는 “늦은 나이지만 부처님 법을 알게 되서 너무 감사하다. 혼자서는 못해낼 일이지만 선원장스님의 원력과 대중의 신심으로 다함께 ‘자성불’을 성취하길 바란다”고 각오를 다졌다.

재가불자를 위한 벽송선회이지만 정진 내용은 출가 수행자 때와 별반 다름이 없다. 새벽과 저녁

## 지리산 벽송사 11월 1~8일 제1회 재가불자를 위한 벽송선회



합양 벽송사에서 11월 1~8일 열린 '제1회 재가불자를 위한 벽송선회' 모습. 벽송사 예진 스님이 선원의 청규를 설명하고 있다.

은 ‘부처님의 마음’인 선(禪), 낮 동안은 ‘부처님의 말씀’인 교(敎)에 빠져든다. 새벽 3시에 일어나면 5시까지 입선을 하고 오후 5시 저녁 공양 후부터 9시 잠들기 전까지도 입선을 한다. 그리고 아침 공양 후부터 저녁 공양 전까지 선원장 월암 스님으로부터 <간화정토>를 바탕으로 ‘간화선의 역사’ ‘정견의 확립’ ‘돈오견성’ ‘간화선 향상일로’ ‘화두와 실참’ ‘간화선과 일상생활’ ‘간화선 수행의 요체’ 등 간화선 전반에 걸친 강의를 듣게 된다. 월암 스님은 출가 수행자 및 재가불자 벽송선회 때마다 교재로 쓰인 <간화정

토>의 저자 주 중국 베이징대학교에서 ‘돈오선 연구’ 박사 학위를 받았다. 9월 6~26일 약 20일간 열린 제2회 출가 수행자를 위한 벽송선회에서는 비구 34명, 비구니 56명 모두 90명의 선객이 월암 스님과 함께 간화선을 수행했다. 이번 재가불자 벽송선회에서도 월암 스님은 7박8일간 50여 명의 구도자와 함께 호흡하면서 선과 교를 함께 다지고 실참을 점검해 한 사람 한 사람이 화두의심을 타파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지리산 마당에 열린 야단법석에 참여한 구도자들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생생했다. 강단에

선 월암 스님이 열정적인 강의를 이어갔다. 스님은 “재가자들이 확고한 간화선의 이념을 정립하고 그 바탕 위에 실천으로 나아가는 수행 풍토가 한국불교 전반에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날인 8일 오전 9시 청어당에서는 회향식이 열렸다. “견성성불 요의중생”을 발원하며 벽송사에 모인 모든 참가자는 단 한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원만 회향했다. 처음 올 때처럼 커다란 가방을 매고 벽송사 산문을 나서서 구도자들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 목조관음보살좌상 등 4점

## 부산시지정 유형문화재 지정예고

부산광역시시는 범어사 원효암 목조관음보살좌상, 선암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일체, 원광사 석가설법도 등 4점의 유물을 시지정 유형문화재로 10월 30일 지정 예고했다.

또 범어사 내원암 석조 지장보살좌상과 복천사 석조석가여래좌상 및 보현보살좌상을 각각 시지정 문화재자료로 지정 예고했다.

선암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불상 내부에는 얼굴 부위까지 경전 등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주로 경전과 향으로 불상 조성과 관련된 발원문과 제작 연대 및 참여한 화원의 이름까지 기재돼 있어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았다.

범어사 원효암 목조관음보살좌상은 부산지역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17~18세기 보살상으로 그 중요성이 인정됐다.

원광사 석가설법도는 바다에서 떠오른 연화좌를 밟고 선 모습으로 현존하는 석가설법도 중 유일하게 해수면에 표현돼 보존 가치를 인정받았다.

시지정 문화재자료로 지정예고 받은 범어사 내원암 석조지장보살좌상은 보기 드문 두견형 지장보살상



원효암 목조관음보살좌상



내원암 석조지장보살좌상



복천사 석조석가여래좌상



복천사 보현보살좌상

이고, 복천사 석조석가여래 및 보현보살좌상은 근대 불교조각의 한 획을 그은 완호 스님의 작품으로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부산시 문화재관리과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예고된 불교 유물들의 경우, 대부분 보관상태가 양호하고 종교, 역사, 문화, 미술학적으로 가치가 크다”고 밝혔다.

이들은 20일간 예고기간을 거친 뒤 문화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로 공식 지정될 예정이다. 박지원 기자

# 53일간 53명의 선지식 ‘화엄경’ 법문

## 통도사 11월 4일~12월 26일 화엄산림대법회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정우)는 11월 4일~12월 26일 53일간 경내 설법전에서 ‘화엄산림대법회’를 개최한다.

4일 열린 입재식에는 영축총림 방장 원명 스님과 주지 정우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법하게 진행됐다.

입재법문은 중앙승가대학 총장 종법 스님을 특별 초청해 <화엄경 헌답>과 화엄산림의 취지 및 역사를 설명했다.

화엄산림대법회는 <화엄경>에서 선재동자가 구법을 위해 53명의 선지식을 찾아다녔듯 53분의 법사 스님을 초청해 53일간 <화엄경>을 강



4일 입재한 통도사 화엄산림대법회.

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30여 년간 해마다 열려 매년 10만 명이 상의 신도가 참여했다.

## 영축사 재가불자 동안거

양산 영축사(주지 각민)는 11월 12일부터 재가불자 100일 동안거에 들어간다. 영축사 시민선방에서 동안거 결제일 동안 경전 독송 및 참선 정진을 하게 된다. 방부 접수는 11일까지 가능하다.

결제일에는 관세음보살 봉안 6주기 기념 산신대제, 회향일에는 낙대 영가 불명 수계 후 천도제를 무보시로 봉행할 예정이다. (055) 381-6631 박지원 기자

동안거 결제일 12일에는 영축총림 방장 원명 스님의 결제법문이, 회향일인 12월 26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회향법문이 각각 마련된다. 한편 입재식에는 KT한국통신과 통도사간 IT 사업협력을 위한 협정서 체결이 있었다. KT는 협정서를 통해 영축산 내 통신선로 지중화와 내부 통신 무료지원, IPTV 활용을 통한 불교문화 발전기여, 문화재보호 및 사찰보호사업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055)382-7007 박지원 기자

# “있는 그대로 아름다워라”

## 창원 성주사, 제1회 곱절산빛가람제

창원 성주사(주지 원정)는 10월 30일~11월 3일 제1회 곱절산빛가람제를 개최했다. “있는 그대로 아름다움”을 주제로 첫째 날인 30일 저녁 7시 이상 스님과 함께하는 우리 음악을 시작으로 31일 성주사 가름빈가 찬불단의 ‘20년의 노래’ 발표회, 1일 성주사 산빛음악회, 2일 정음 스님의 선다 시연 및 시낭송회, 현공다례 시연이 4일간 이어졌다. 특히 1일 오후 6시 30분부터 대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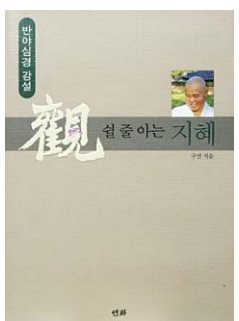
전 앞마당에 마련된 특별무대에서 열린 성주사 산빛음악회에는 맨발의 이바 의미, 소리꾼 김용우가 특별 출연해 산사의 가을밤을 뜨겁게 수놓았다.

주지 원정 스님은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곱절산빛가람제는 자연과 사람, 마음과 문화가 만나 꾸미지 않은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며 “성주사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사람의 아름다움도 함께 발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지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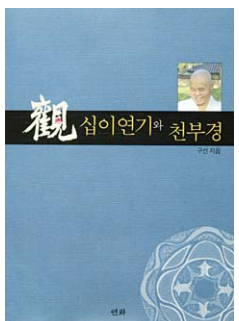
**구선스님과 함께하는 치유명상**  
● 일정: 매주 4박 5일 (1회 20명 한정)  
● 대상: 여름에도 추우신 분, 겨울에 너무너무 심으신 분, 손발이 찬 분, 감기 자주 걸리시는 분, 상기병, 그 밖에 각종 면역성 질환에 시달리시는 분  
● 문의: 010-4589-1897  
● 치유명상의 특징과 효과: 자율원리명상과 식이요법을 병행, 냉기제거와 정부순환, 신경순환의 차폐 중풍예방, 우울증 스트레스해소, 면역력 강화  
※ 빠 속에 막힌 냉기까지 남김없이 뽑아드립니다.

**12연기만다라 및 한글자음만다라 전시회**  
● 일정: 2008년 12월 5일 - 11일(목요일)  
● 장소: 법련사 (서울 종로구 사간동 121-1 / 02-733-5322)  
● 본원: 서울 서초구 방배동 836-3 / 070-8104-8145, 010-2655-8145  
● 산본지원: 군포시 산본동 1061-1번지 현대아카데미상가 401호 시암이침한의원내  
● 동대문지원: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962번지 3층 동천선원 / 070-8247-8152, 010-8004-4678  
● 대전지원: 대전시 서구 탄방동 702번지 한빛빌딩 3층 청심연꽃집 / 011-658-9817  
● 보령지원: 충남 보령시 미산면 봉성리 392-2 대명암 / 010-9948-6325  
● 연희사: 경북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 887-2번지 / 010-2655-8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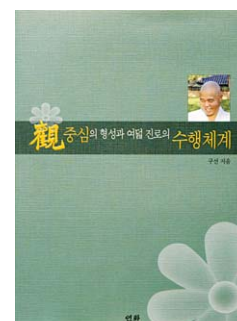
[구선지음 / 368쪽]

**觀 실 줄 아는 지혜**  
“관 수련의 목적은 자기를 아는 데 있다. 자기를 안다는 것은 자기 근본과 자기 면모, 그리고 자기 존재 목적을 아는 것이다. 자기 근본이란 자기의식이 비뚤어지는 자리를 말한다. 자기 면모란 자기를 이루고 있는 의식체계를 말한다. 자기 존재 목적이란 세상 속에서의 자기 역할을 말한다.”  
■ 상세내용: 반아심경을 관의 심지법에 입각해서 해석한 책. 조건과 법과 오온의 발현법, 개공의 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견성 이후의 수행법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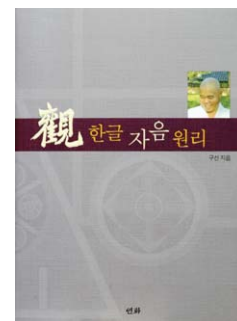
[구선지음 / 376쪽]

**觀 심이연기와 천부경**  
생명에 무명의 원인이 되었던 것은 밝은 성품이 일으키는 행의 현상과 심식의, 그리고 밖의 경계이다. 만약 생명이 그런 조건 속에 있으면서도 본성을 망각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밝음을 얻은 것이다. - 「심이연기」 중에서  
생명이여 당당하라. 그리고 일체 생명을 평등하게 보아라. 저는 나의 심식에 심어지고 나는 저의 심식에 심어지니나 경건하고 정중하게 못 생명을 바라보라. - 「천부경」 중에서 -  
■ 상세내용: 생명이 최초로 시발되는 과정과 육체의 의식을 형성하는 과정, 그리고 생명이 그 존재성을 완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 심이연기법과 천부경은 그 내용 속에 서로 부족한 것을 메꾸어 줄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이 책은 심이연기와 천부경에 관한 내용을 다루며 두 사상의 깊은 뜻을 살피고 그 속에 숨어 있는 깊은 뜻을 상세하게 다루었다.



[구선지음 / 312쪽]

**觀 중심의 형성과 여덟 진로의 수행체계**  
수행자가 한 경계를 대할 때는 여덟 가지 진로로 그 나아갈 바를 삼을 줄 알아야 한다. 무엇을 일러 여덟 가지 진로라 말하는가? 첫째는 자기 중심을 통해 조건을 행하는 일이다. 둘째는 자기 근본의 일이다. 셋째는 자기 면모의 일이다. 넷째는 각성을 증득하는 일이다. 다섯째는 자기 존재목적 실현하는 일이다. 여섯째는 좀 더 넓은 교유성을 갖추는 것이다. 일곱째는 자기 인식의 틀을 넓히는 것이다. 여덟째는 자기를 제도하는 것이다.  
■ 상세내용: 대승의 삼관법에 입각해서 견성오도에 이르는 법을 제시. 용수로부터 전해진 대승불교의 수행체계를 여덟 진로에 입각해서 아홉 단계로 구분해 놓았다. 특히 중관을 통해 선정을 얻는 법과 공관을 통해 삼매를 얻는 법, 가관을 통해 자기면모를 개발하는 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구선지음 / 256쪽]

**觀 한글 자음 원리**  
문자는 자의식을 담은 그릇이요, 사상을 담은 그릇이다.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심성이 달라진다. 부드러운 말, 좋은 말을 쓰는 이는 유순하고 심성이 고와지며 거친 말, 격한 말을 쓰는 이는 심성이 거칠어진다. 처음에 한글을 만들 때부터 이런 효과를 알고 만들었다. 한글은 철학적, 사상적 체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체계를 일깨워서 오장의 혼성을 활용하는 법이 들어 있다. 그래서 가장 상위의 문자체계이다. 가장 안정된 신경체계, 가장 안정된 경락체계, 가장 안정된 장부체계를 갖추어서 머릿골 속에서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 한글 자음 수련의 목적이다.  
■ 상세내용: 한글 자음원리를 통해 생명이 자기완성에 이르는 법을 제시. 한글 자음원리란 심이연기의 과정 중, 행의 과정에서 일어난 변화를 자음을 통해 표현한 것이다. 자음원리란 행의 원리이면서 수행의 방편이다. 자음원리를 통해 수행하게 되면 생명의 연지에서 벗어나 진언문에 들어가게 된다.

구입문의: 연화출판사 010-4589-1897